



## 육계 불황타개를 위한 전 양계인 동참 호소

본회 종계분과위원회 및 종계·부화산업발전 협의회는 최근 병아리 생산 과잉에 따른 육계 가격 하락으로 육계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조기에 타개하는 방편으로 병아리 생산을 감소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육용병아리 생산감축에 적극 협조 하자는 내용을 전 종계·부화장에 배포하였다.

- 다 음 -

1. 각 농장마다 기본 생산계획에서 10% 이상 감산합시다.
2. 생산성이 낮은 고주령(산란율 60% 이하)의 계군은 즉시 도태합시다.
  - 10월 이후 종란 및 발생된 병아리를 폐기해야 할 상황도 예견됩니다.
3. 환우를 절대 하지 맙시다.
  - 환우는 불경기의 악순환만 초래할 뿐입니다.
4. 덩핑병아리 판매를 하지 말고 폐기처분 합시다.

## 가금티푸스 9R생균백신 수입 건의 및 회신

### 가금티푸스 백신 수입 불투명

본회는 최근 몇 년간 가금티푸스가 발생하여 양계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어 백신접종 등 각종 예방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완전 근절되지 않고 전국에 확산됨에 따라 이를 완전 퇴치한다는 방침 아래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9R생균백신을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3일 농림부에 요청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은 가금티푸스 원인균의 특성상 어떤 종류의 백신도 완전한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또한 추백리 방역 실시 요령에 의한 근절대책 추진 등 국내방역 정책상 수입타당성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회신이 전달되어 가금티푸스의 완벽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되었다.

## 살모넬라 오염경로 차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본회가 주최하고 (주)동방이 후원한 살모넬라 오염경로 차단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1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양계인 및 관계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료첨가제로 살모넬라를 억제시키는 터민에이트가 (주)동방에 의해 수입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와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 형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미국 Anitox회사의 Kurt Richardson 박사가 강연에 나섰으며 김선중 서울대학교 교수가 해설을 담당했다.

터민에이트는 사료에 첨가하여 살모넬라균을 살멸하고 항곰팡이 작용을 하면서 가축의 체내에 잔류하지 않는 특이성을 보이는데 생균제와 생효모제를 제외한 모든 사료원료와 함께 쓰일 수 있다.

###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불황타개 위해 병아리 입식 자제키로



9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육계불황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 산지가격이 생산비의 절반 수준으로 거래되면서도 입추열기 과열로 병아리 가격이 초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계값이 생산비 선으로 회복될 때

까지 병아리 입식을 자제키로 결의하였다. 육계 값 폭락의 원인은 국내경기 침체와 추석에 대비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출하가 지연되었고, 삼복 특수수요를 겨냥한 종란수입이 복 이후까지 체화되었기 때문으로 진단하였으며, 불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 채린분과위원회 개최

노계도태 필요성 강조



9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6일 특란가격이 사상 최초로 101원을 기록, 고가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벌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가을철 입추열기와 맞물려 병아리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격이 고가를 형성하면서 노계도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석 직후부터 난가하락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성적이 나쁜 노계를 조기에 도태하는 것이 불황에 대비한 현명한 방책이라 강조하였다.

한편 난좌가격을 대폭 인상시킨 것과 관련하여

여 난좌회사 관계자와 가격조정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차후 의견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우수종계장 품질인증제도 조기정착 노력



9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의 경우 지난 6, 7월 병아리 입식숫자가 근본적으로 많아 불황이 길어지고 있으며, 채란의 경우 환우계군의 생산이 많고 신계군의 생산가담이 적어 적절한 노계도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10일 육계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병아리 입식 자제 내용을 종발협과 의논, 노계도태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우수종계장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96전국종계·부화인 대회 개최

오는 10월 9일 온양그랜드파크 호텔에서

본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와 종계·부화발전협의회(회장 노태모)는 오는 10월 9일 육계불황타개를 위한 '96전국종계·부화인 대회를 온양 그랜드파크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불황타개를 위한 대책협의에 이어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대처하는 종계·부화인의 자세'를 주제로 허신행(한국소비자보호연구원) 원장이 '위생방역시책 방향'을 주제로 농림부 배상호(가축위생과) 과장이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 본회 양평, 가평육계분회 친선 단합대회 개최

본회 양평육계분회(분회장 지충근)는 지난 18일 양평군 용문면 체육공원에서 가평육계분회(분회장 이의정)와 연대로 본회 최원악 부회장을 비롯해 회원 및 관련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육계인의 단합과 육계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행사와 체육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기념행사에서는 이의정(가평분회), 최윤식(양평분회) 씨가 각각 감사 및 공로패를 수여 받았으며 김정주 건국대 교수의 육계가격 예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다.

체육행사에서는 족구, 배구, 피구, 계란나르기,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등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을 다졌다.

내년행사는 가평육계분회에서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다.